



일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효과

Effects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in High School Adolescent

저자 (Authors)	이무식, 김은영, 김대경, 이미영, 임은선, 이석구, 이종영, 이연경 Moo-Sik Lee, Eun-Young Kim, Dae-Kyung Kim, Mi-Young Lee, Eun-Sun Lim, Seok-Ku Lee, Jong-Young Lee, Yeon-Kyung Lee
출처 (Source)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1) , 2002.1, 7-22 (16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6(1) , 2002.1, 7-22 (1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569223
APA Style	이무식, 김은영, 김대경, 이미영, 임은선, 이석구, 이종영, 이연경 (2002). 일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1), 7-22.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3 2016/07/05 14: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일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효과*

이무식 · 김은영 · 김대경 · 이미영¹ · 임은선² · 이석구³ · 이종영⁴, 이연경⁵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 혜전대학 간호학과²,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³, 보령시 보건소⁴,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⁵

= Abstract =

Effects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in High School Adolescent

Moo-Sik Lee, Eun-Young Kim, Dae-Kyung Kim, Mi-Young Lee¹, Eun-Sun Lim²,
Seok-Ku Lee³, Jong-Young Lee⁴, Yeon-Kyung Lee⁵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¹

Department of Nursing, Hejun College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³

Boryung City Community Health Center⁴

Department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National Institute of Health⁵

Objectives : Recently, adolescent sexual problems have become a source of increasing social, educational, and political concern in Korea. The positive knowledge and attitude of adolescents in developmental stage is important and essential component in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in the adulthood lif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ssess the effect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the 10th grade students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Methods : We provided 428 10th grade students in 3 high schools in Boryung city of Chungnam province with sexuality education monthly from May to December 2000.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se students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o assess the change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Results : Most of the students had a high level of knowledge about biological aspects of sexuality and positive attitude about sexuality. But they had poor knowledge in contraception

*이 연구는 2000년도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이무식(충남 논산시 내동 산30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전화번호 : 041-730-5432, 팩스번호 : 041-736-5318

e-mail : mslee@konyang.ac.kr)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Knowledge about sexuality wa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education but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ttitude. Level of knowledg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 about sexuality.

Conclusions : This sexuality education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exuality knowledge. A continuous and systematic sexuality education program that is designed according to the stage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student needs to be implemented because sexuality knowledge is correlated with sexuality attitude.

Key words : sexuality education program, high school adolescent, effects, knowledge, attitude

서 론

청소년기의 보호되지 않은 조기 성관계는 불건강의 위험과 사회적 불이익을 증가시키며(Zabin 등, 1979; Henshaw 등 1989; Rosenfield 등, 1989; Webster 등, 1993; Fraser 등, 1995; Anderson-Ellstrom 등, 1996; Sieving 등, 1997; 이무식 등, 2000), 청소년기의 포괄적 성 건강증진은 신체적, 정신적 안녕(well-being)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다(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복지부, 2000). 따라서 생의 초기단계에 있는 학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행동습득과 실천,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 건강증진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다. 물론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성교육 등과 같은 비공식적 교육과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Beitz, 1998),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지속적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청소년 성 건강증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제몹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사회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보건요원 또는 교사를 육성하여야 하며(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보건복지부, 2000), 정규 수업시간에서의 성교육 시간의 확보, 성

장발달 단계별 수준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이무식 등, 2000).

우리나라는 지금껏 공식적이고 계획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실시는 없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습득이 잡지나 친구 또는 선배 및 매스컴으로부터의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고, 부모나 교육자에 의한 지식습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귀희, 1986; 안창선과 김현옥, 1991; 박애신, 1992; 김주연, 1993; 김현경 등, 1999).

물론 일부 각급 학교에서 일시적, 단편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평가는 미흡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성교육 관련연구는 교육학, 보건학적 측면에서 연구들로 대부분 일반적인 방향설정과 관련된 기초연구 또는 실태 및 요구도 조사가 대부분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중재에 대한 평가연구는 이귀현(1985), 방미라(1989),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및 울산 성폭력상담소(1999), 이선희 등(2000), 고승덕 등(2000) 등 몇 편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이다(김현경 등, 1999;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및 보건복지부, 2000).

이에 본 연구는 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내용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의 1개 시지역 모자보건사업(보령시 보건소, 1999,

보령시보건소 및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0)의 2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을 목표집단으로 개발, 시행되었던 성교육 프로그램의 관련자료 및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검증함으로써 성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일개 시지역의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 프로그램 중 청소년 생식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3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전후 비교평가 모형 설계의 추적 실험 연구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의 기초 조사와 교육 후 평가조사를 시행하였다.

중재되었던 주요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교육 1회당 50분 수업으로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실시되었다. 실시된 성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SIECUS(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의 지침(1999)을 중점 활용하여 교육부 성교육 지도자료, 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성교육 자료, YMCA 성교육 자료, 울산시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검증보고서(1999) 그리고 보령시 모자보건사업 1차년도 연구결과 및 국내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보령시 학교보건추진위원회의 의견 및 심의를 거쳐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표 1). 성교육 주제는 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의 성, 남녀관계의 발전, 성폭력 예방, 생명의 탄생, 성병 예방과 성기위생, 대중매체와 성, 성폭력 예방하기, 종합 및 평가시간 등이었으며, 각 시간별로 수업계획서는 주제, 학습목표, 준비물, 지도과정(학습단계, 문제점, 학습준비 및 문제파악, 발견 및 판단, 정착 및 적용), 보조자료,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한 양식으로 작성하였다. 강의방법은 강의, OHP, 모형, 슬라이드, 비

디오 등을 활용하였으며, 가급적이면 일방적인 강의 방식은 지양하고 질문과 답변 형식의 토론으로 유도하였다. 강사는 대학교수, 공중보건의, 보건간호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문강사 등 다양한 직종의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였으며, 보건간호사는 성교육 및 상담 전문과정을 이수한 보건소 담당간호사였다. 학교별로 활용시간은 정규시간, 아침시간, 점심시간, 특활시간, 체육시간 등 가능한 시간을 활용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성교육 실시전인 2000년 4월 중 그리고 성교육이 종결된 12월 중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작성시 질문하는 학생에게 직접 설명하게 함으로써 설문지의 작성 완성도를 높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우리나라에서 성지식, 태도, 실태조사에 사용된 문항(황금주, 1987; 이은정, 1990; 최순희, 1990; 구자옥, 1991; 박성정, 1996; 김은주, 1997; 차은석, 1998;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와 울산성폭력상담소, 1999)들을 수집하여, 수정·보완 개발되어 1차년도 기초조사시에 사용한 설문지(이무식 등, 2000)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사회인구학적 조사변수로는 성, 연령, 주거형태, 부모의 직업, 가계 수입, 가족수, 형제 순위 등 12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성지식은 임신관련 10개 문항, 피임관련 5개 문항, 성병관련 10개 문항, 월경관련 3개 문항, 낙태관련 3개 문항, 성반응 및 성욕구 관련문항 5개 문항, 생식기 관련 5개 문항, 성폭력 관련 5개 문항, 성폭력 충동 조절관련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에 관한 태도는 10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시지역 3개 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학교당 1학년 5개 학급 이상, 조사 대상 수는 각 학교당 150명 이상을 표본으로 임의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에서 기본자료가 조사되지 않은 경우 등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업계 여고고등학생 197

표 1.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요약

회	주 제	주요내용	학습목표	강의방법	강 사	활용시간
1	성에 대한 이해	· 성문화, 남녀의 성 차이 · 바람직한 성, 올바른 성역할 태도	· 남녀의 성차를 이해한다 · 성, 성역할, 성역할 정체감의 의미를 이해한다 · 소년기는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한다	강의, OHP, 모형, 슬라이드, 비디오, 강의, 토론, 설문 등	보건간호사, 공중보건의, 가족보건복지협회 전문강사, 대학교수, 성폭력 상담실장 등	정규시간, 아침시간, 점심시간, 특활시간, 체육시간 등 (각 회당 50분)
2	청소년기의 성	· 생식기에 대한 이해, 심리적, 정신적 발달 · 청소년기의 성문제	· 청소년기의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 남녀의 생식기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 남자와 여자의 생리현상을 이해한다			
3	남녀 관계의 발전	· 이성교제, 결혼, 순결 · 성적 욕구 해소방안	· 이성교제의 예절과 이성교제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한다 · 혼전순결에 대한 바른태도를 정립한다 ·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한다 · 성충동과 자위행위에 대한 이해 · 성충동에 대한 바르게 대처한다			
4	생명의 탄생	· 임신과 출산 · 피임과 임신중절	· 임신과 출산의 생리와 과정을 이해한다 · 배란시기와 분만예정일을 계산할 수 있다 · 피임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에 대해 안다			
5	성병 예방과 성기 위생	· 에이즈, 성병에 대한 이해 · 성기보호와 청결	· 성병과 에이즈의 감염경로와 예방법을 안다 · 성기보호의 중요성과 청결 관리방법을 안다			
6	대중매체와 성	· 성과 광고, 청소년 과 음란물	· 포르노와 예술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포르노의 과다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이해한다			
7	성폭력 예방하기	· 성폭력에 대한 이해, 성폭력 예방 · 성폭력 피해시 대처요령, 성충동 해소방안	·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특징을 이해한다 ·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적, 법률적 사항과 기관을 익힌다			
8	종합 및 평가	· 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종합평가				

명(46.0%), 실업계 남녀공학 고등학생 68명(15.9%),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생 163명(38.1%)으로 남학생 184명(43.0%), 여학생 244명(57.0%)이었다. 자료 중 일부 결손자료는 시스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7.5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Chi-square 검정, 교육전후 점수의 평균치 검정은 paired T-test 등을 실시하였다(SPSS Inc., 1997).

본 연구에서의 성교육의 효과란 학생들의 성교육 전후의 성 지식도 및 태도 점수의 변화로 정의하였는

데 이는 약 1년간 총 8회에 걸친 단기적인 운영 프로그램으로 행동변화의 측정에 제한점이 있어 즉각적인 영향(impact)을 측정할 수 있는 성교육 전후 성지식 및 태도 점수의 변화를 측정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성 적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184명(43%), 여학생이 244명(57.0%)으로 총 428명(100.0%)이었다. 학교 특성별로는 실업계 여학교가 197명(4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 공학이 163명(38.1%), 실업계 공학이 68명(15.9%) 순이었다.

숙소 형태로는 자가인 경우가 390명(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교별로 인문계가 95.1%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여학교 92.4%, 실업계 공학교 79.4%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거주형태는 자택이 334명(78.0%)으로 성별로는 남학생은 85.0%, 여학생은 75.7%, 학교별로 인문계의 경우 88.9%, 실업계 여학교 76.6%, 실업계 공학 66.1% 순으로 성별,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p < 0.05$). 주거형태에서 아파트 여부별로는 아파트가 94명(22.0%), 기타가 333명(78%)으로 성별, 학교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직업분포는 농·수산업 종사가 159명(37.1%), 기타 269명(72.1%) 등이었으며, 부모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이 184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137명(32.0%), 초등학교 졸업이 107명(25.0%)으로 성별, 학교별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 가계수입 분포는 100만원 이하가 169명(46.8%), 100~199만원이 157명(43.5%), 200만원 이상은 35명(9.7%)으로 남학생의 경우가 100~199만원이 46.9%, 200만원 이상이 23명(14.2%)으로 여학생의 40.7%, 6.0%에 비해 고소득이 많아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학교별로는 인문

계 공학교는 100~199만원이 47.1%, 실업계 공학교는 43.1%, 실업계 여학교는 40.6%였고, 200만원 이상은 인문계 공학교 13.8%, 실업계 공학교 13.9%, 실업계 여학교 4.8%로 학교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동거가족수의 분포는 1~3명이 97명(22.7%), 4명 이상이 331명(77.3%)으로 성 및 학교 특성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형제순위에서는 장남 또는 장녀가 185명(43.2%), 기타가 56.8%로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가 장남이 64.2%, 여학생은 29.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학교별로도 인문계 공학교인 경우가 장남 또는 장녀가 56.1%, 실업계 공학이 59.1%, 실업계 여학교는 30.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표 2).

조사대상자의 건강행태 분포로 지난 1주일간 운동여부에서 1~2일 운동자가 178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일 이상이 149명(34.8%), 없다가 101명(23.6%) 순으로 여학생은 지난 1주일간 운동이 없다가 29.5%로 남학생의 16.8%보다 많았으며, 3일 이상 운동자는 남학생이 45.3%로 여학생의 24.9%로 더 많아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학교별로는 지난 1주일간 운동하지 않는 학생이 실업계 공학교 28.1%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여학교 27.6%, 인문계 18.1% 순이었으며, 3일 이상 운동자는 인문계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공학교 40.6%, 실업계 여학교 24.0%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평소 부모님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정도는 착용치 않음이 324명(7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착용함이 13.9%, 착용함이 8.4% 등으로 성별, 학교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달간 흡연여부로는 흡연자는 84명(20.0%)이었으며, 남학생은 27.1%로 여학생의 14.7%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았으며, 학교별로는 실업계 공학교인 경우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 공학이 23.3%, 실업계 여학생 11.3%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계	성 별		학교별		
		남	여	인문계(공학)	실업계(여)	실업계(공학)
숙소형태						
자가	390 (91.1)	165 (89.7)	225 (92.6)	154 (95.1)	182 (92.4)	54 (79.4)**
기타(하숙, 자취 등)	38 (8.9)	19 (10.3)	18 (7.4)	8 (4.9)	15 (7.6)	14 (20.6)
거주형태						
자택	334 (78.0)	153 (85.0)	186 (75.7)*	144 (88.9)	147 (76.6)	43 (66.2)**
기타	94 (22.0)	27 (15.0)	58 (24.3)	18 (11.1)	45 (23.4)	22 (33.8)
주거형태						
아파트	94 (22.0)	44 (24.6)	50 (21.4)	34 (21.3)	58 (20.1)	22 (34.4)
기타	333 (78.0)	135 (75.4)	184 (78.6)	126 (78.8)	151 (79.9)	42 (65.6)
부모직업						
농·수산업	159 (37.1)	68 (38.4)	91 (39.1)	62 (39.0)	73 (39.2)	24 (36.9)
기타	269 (72.1)	109 (61.6)	142 (60.9)	97 (61.0)	113 (60.8)	41 (63.1)
보호자 교육정도						
초졸	107 (25.0)	43 (24.7)	64 (27.1)	33 (21.0)	54 (28.4)	20 (71.7)
중졸	137 (32.0)	50 (29.7)	87 (36.9)	51 (32.5)	69 (36.3)	17 (27.0)
고졸 이상	184 (43.0)	81 (46.6)	85 (36.0)	73 (46.5)	67 (35.3)	26 (41.3)
월평균 가계수입						
<100	169 (46.8)	63 (38.9)	106 (53.3)**	54 (39.1)	90 (54.5)	25 (43.1)*
100~199	157 (43.5)	76 (46.9)	81 (40.7)	65 (47.1)	67 (40.6)	25 (43.1)
≥200	35 (9.7)	23 (14.2)	12 (6.0)	19 (13.8)	8 (4.8)	8 (13.9)
동거 가족 수(명)						
1~3	97 (22.7)	41 (22.7)	56 (23.1)	38 (23.6)	44 (22.6)	15 (22.4)
≥4	331 (77.3)	140 (77.3)	186 (76.9)	123 (76.4)	151 (77.4)	52 (77.6)
형제순위						
장남(장녀)	185 (43.2)	115 (64.2)	70 (29.8)**	88 (56.1)	58 (30.4)	39 (59.1)**
기타	243 (56.8)	64 (35.8)	165 (70.2)	69 (43.9)	133 (69.6)	27 (40.9)
계	428 (100.0)	184 (43.0)	244 (57.0)	163 (38.1)	197 (46.0)	68 (15.9)

* $p < 0.05$, ** $p < 0.01$, χ^2 -검정에 의함

한 달간 음주여부에서 음주자는 127명(30.3%)이었으며, 감기약을 포함한 약물 및 유해물질을 치료목적 이외에 사용해본 경험자는 206명(48.1%)으로 성별, 학교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표 3).

성교육 실시 전후에 따른 성지식의 정답율 변화를 성지식의 범주별로 살펴보았다. 성지식의 범주는 임신, 피임, 성병, 월경, 낙태, 성반응 및 성욕구, 생식기, 성폭력, 성 충동조절에 관하여 총 48문항에 대하여 측

정하였다.

임신 관련문항에서는 ‘배란된 난자는 약 3일간의 생명력이 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이 임신이다’,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 아기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266~280일 후에 나온다’ 등의 문항에서 교육전에 비하여 교육후의 정답율이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나($p < 0.01$, $p < 0.05$), ‘생리 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임

표 3. 조사대상자의 건강형태

단위: 명(%)

	계	성 별		학교별		
		남	여	인문계(공학)	실업계(여)	실업계(공학)
지난 1주일간 운동여부						
없다	101 (23.6)	30 (16.8)	71 (29.5) **	29 (18.1)	54 (27.6)	18 (28.1) **
1~2일	178 (41.6)	68 (38.0)	110 (45.6)	63 (39.4)	95 (48.5)	20 (31.3)
3일 이상	149 (34.8)	81 (45.3)	60 (24.9)	68 (42.5)	47 (24.0)	26 (40.6)
안전벨트 착용정도						
착용 안함	324 (77.7)	143 (80.1)	181 (86.1)	129 (81.2)	148 (76.3)	47 (73.5)
가끔 착용함	58 (13.9)	20 (11.2)	38 (16.6)	16 (10.1)	31 (16.0)	11 (17.2)
착용함	35 (8.4)	16 (8.9)	19 (7.9)	14 (8.8)	15 (7.8)	6 (9.3)
한달간 휴면여부						
없다	335 (80.0)	132 (72.9)	203 (85.3) **	122 (76.7)	173 (58.7)	40 (61.5) **
있다	84 (20.0)	49 (27.1)	35 (14.7)	37 (23.3)	22 (11.3)	25 (38.5)
한달간 음주여부						
없다	292 (69.7)	123 (68.3)	169 (70.7)	107 (66.9)	145 (74.4)	40 (62.5)
있다	127 (30.3)	57 (31.7)	70 (29.3)	53 (33.1)	50 (25.6)	24 (39.4)
치료목적 이외 약물 및 화학물질 사용경험						
없다	222 (51.9)	93 (50.5)	129 (52.9)	81 (50.0)	98 (49.7)	43 (62.3)
있다	206 (48.1)	91 (49.5)	115 (47.1)	81 (50.0)	99 (50.7)	26 (37.7)

** $p < 0.01$, χ^2 -검정에 의한

신이 가능하다', '정자는 자궁내에서 약 48시간 정도 산다' 등 3문항에서는 교육 후에서 정답율이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임신을 하게 되면 월경이 없어진다', '성관계를 하면 여성의 배란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성의 성숙표시인 초경과 몽정이 나타나면 이때부터는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등의 문항에서는 교육 후에서 정답율의 향상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임 관련문항에서는 '영구적 피임방법으로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 여성의 경우 난관수술이 있다'와 '먹는 피임약은 여성에서 암을 유발한다'에서 교육 후에 유의한 정답율의 증가가 있었다($p < 0.05$). 기타 문항에서도 교육 후에 정답율의 전반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병 관련문항에서는 '콘돔의 사용은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성병이나 에이즈는 검사를 해도 균

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가 있어 성행위를 한 2~3개월 후에야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다', '매독이 완치되지 않으면 뇌손상의 원인이 된다', '성병에 걸리면 항상 증상이 있다', 성병은 전염병이다', '여성이 임신중 성병에 걸리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등의 문항에서 교육 후에 유의한 정답율의 증가가 있었으며($p < 0.01$), 기타 문항에서도 증가경향이 있었다.

월경 관련문항에서는 '정신적 충격으로 가끔 월경이 없을 수도 있다' 문항에서 교육후의 정답율이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p < 0.05$), 기타 문항에서도 증가경향이 있었다.

낙태 관련문항에서도 모두 교육후에 정답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인공적으로 정상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인공임신중절이다'였다($p < 0.05$).

성반응 및 성욕구 관련문항에서도 전반적으로 교육

표 4. 성교육 실시 전후에 따른 성 지식의 정답을 변화 비교

단위: 명(%)

	교육 전	교육 후
임신 관련문항		
배란된 난자는 약 3일간의 생명력이 있다**	189 (47.1)	234 (58.9)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이 임신이다*	323 (80.1)	338 (84.9)
임신을 하게 되면 월경이 없어진다	339 (83.5)	340 (86.5)
성관계를 하면 여성의 배란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332 (82.8)	333 (83.7)
성의 성숙표시인 초경과 몽정이 나타나면 이때부터는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333 (82.6)	343 (86.4)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	316 (77.8)	339 (85.2)
아기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266~280일 후에 나온다*	310 (76.5)	326 (82.7)
생리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	248 (61.1)	215 (53.9)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임신이 가능하다**	257 (63.8)	207 (51.9)
정자는 자궁 내에서 약 48시간 정도 산다**	198 (49.4)	123 (31.0)
피임 관련문항		
월경주기법은 다음 월경 예정일 전 12일에서 19일 사이에 성교를 피하는 피임법이다	274 (67.7)	285 (72.3)
영구적 피임방법으로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 여성의 경우 난관수술이 있다*	291 (71.5)	330 (83.8)
성교 후 질을 씻어내는 방법이 효과적인 피임방법이다	293 (72.2)	284 (72.1)
성관계시 질외사정을 한 경우에 임신이 될 수도 있다	205 (50.4)	204 (51.9)
먹는 피임약은 여성에서 암을 유발한다*	215 (53.1)	234 (59.8)
성병 관련문항		
성병은 반드시 성교를 통해서 걸릴 수 있다	153 (37.7)	159 (39.9)
에이즈는 남편의 성관계에 의해서만 걸린다	309 (75.9)	318 (79.9)
콘돔의 사용은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249 (61.3)	293 (74.6)
에이즈나 성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혈액검사이다	342 (84.0)	393 (83.7)
성병이나 에이즈는 검사를 해도 균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가 있어 성행위를 한 2~3		
개월 후에야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다**	252 (62.2)	291 (73.1)
매독이 완치되지 않으면 뇌손상의 원인이 된다**	181 (45.3)	215 (54.2)
성병에 걸리면 항상 증상이 있다**	218 (53.8)	248 (62.8)
성병은 전염병이다**	212 (52.7)	244 (61.6)
성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받고 나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352 (86.5)	342 (86.1)
여성이 임신중 성병에 걸리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324 (79.6)	346 (88.0)
월경 관련문항		
월경 중에는 질내에 세균이 침투할 염려가 없어진다	288 (70.8)	298 (74.5)
정신적 충격으로 가끔 월경이 없을 수도 있다*	298 (73.2)	312 (78.6)
초경 후 얼마 동안 월경이 없거나 불규칙적인 경우가 있다	355 (87.2)	363 (90.8)
낙태 관련문항		
인공적으로 정상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인공임신중절이다*	307 (75.8)	326 (82.1)
임신 7개월 이전까지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242 (59.9)	245 (61.9)
낙태를 임신 3개월 이전에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182 (44.7)	202 (50.6)
성반응 및 성욕구 관련문항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에 관심이 없고 반응적이지 못하다	312 (76.7)	297 (75.0)
여성과 남성의 성반응 주기에 차이가 있다	311 (76.4)	310 (77.5)

* p<0.05, ** p<0.01, McNemar χ^2 -검정에 의함

표 4. 계속

	교육 전	교육 후
자위행위를 하면 머리가 나빠지거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251 (62.0)	273 (68.4)
성적인 태도와 행위는 전적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121 (29.8)	137 (34.5)
대부분의 소년들은 사춘기 동안 몽정을 한다	344 (84.5)	339 (85.0)
생식기 관련문항		
남성성기의 크기는 여성의 오르가즘 경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96 (48.4)	194 (49.2)
여성은 첫 관계 후 반드시 출혈을 한다**	171 (42.1)	210 (52.9)
발기했을 때 남성의 성기의 크기는 비슷하다	109 (26.8)	114 (29.0)
남성의 고환은 보통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짧다*	192 (47.3)	216 (55.0)
음경을 자주 만져주면 계속적으로 커진다	205 (50.5)	195 (49.4)
성폭력 관련문항		
말로만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여 성적 행동을 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320 (79.0)	324 (81.2)
성폭력은 밤에 한적한 곳에서만 일어난다*	294 (72.6)	316 (78.8)
친척이나 가족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했다**	333 (82.2)	373 (93.3)
성폭력은 남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306 (75.7)	321 (81.1)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목욕하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간다**	241 (59.4)	327 (81.8)
성충동 조절 관련문항		
성충동은 건전한 운동, 여가활동을 통해 줄일 수 있다*	330 (81.3)	350 (87.3)
남자의 성적 충동도 여성에 의해 조절된다	303 (74.8)	315 (78.8)

* $p < 0.05$, ** $p < 0.01$, McNemar χ^2 -검정에 의함

후에 정답율 상승경향을 보이나 유의한 증가를 보인 문항은 ‘자위행위를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였다($p < 0.01$).

생식기 관련문항에서는 ‘여성은 첫 관계 후 반드시 출혈한다’, ‘남성의 고환은 보통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짧다’의 두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p < 0.05$).

성폭력 관련 모든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교육후의 정답율의 증가경향을 보였으며, ‘말로만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여 성적 행동을 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1$, $p < 0.05$).

성충동 조절 관련문항에서는 ‘성충동은 건전한 운동, 여가활동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문항의 정답율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 < 0.05$) (표 4).

성태도에 관해서는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교육전후로 단순 비교하였다. 성태도 문항에서는 ‘성교는 성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유희일 뿐이다’가 오히려 교육 후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 < 0.05$), ‘성에 대해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라고 답한 사람도 교육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 0.01$). ‘남성의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 또는 노는 예스라고 해석해도 된다’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 < 0.05$). 기타 일반적 성태도 관련문항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성에 관한 지식도는 임신, 피임, 성병, 월경, 낙태, 성반응 및 성욕구, 생식기, 성폭력, 성충동조절에 관하여 총 48문항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정답의 경우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고, 합계 48점을 만점

표 5. 성교육 실시 전후에 따른 성태도'의 변화 비교

단위: 명(%)

	교육 전	교육 후
성행위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존경, 사랑, 믿음,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347 (82.0)	335 (84.0)
성교는 성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유희일 뿐이다*	57 (13.5)	76 (19.0)
성에 대해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	104 (24.5)	133 (33.5)
남성의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 또는 노는 예스라고 해석해도 된다*	179 (42.2)	144 (36.2)
성과 사랑은 분리할 수 있다	198 (46.6)	207 (51.9)
성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된 장소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해야 한다	173 (40.8)	167 (41.0)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중요하다*	218 (51.3)	172 (43.0)
남자의 성 욕구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345 (81.2)	318 (79.3)
음란물에서 나오는 성 행동을 나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131 (31.0)	130 (32.6)
결혼 전 성관계는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233 (54.8)	202 (51.0)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 p<0.05, ** p<0.01, McNemar χ^2 -검정에 의함

표 6. 성교육 실시 전후에 따른 성 지식 및 성 태도 점수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교육 전	교육 후
성 지식**	31.2 ± 4.6	33.1 ± 4.9
임신 관련문항	7.0 ± 1.5	7.0 ± 1.4
피임 관련문항**	3.1 ± 1.1	3.4 ± 1.1
성병 관련문항**	6.4 ± 1.6	7.0 ± 1.7
월경 관련문항*	2.3 ± 0.8	2.4 ± 0.8
낙태 관련문항**	1.8 ± 0.8	1.9 ± 0.8
성 반응 및 성 욕구 관련문항	3.3 ± 0.9	3.4 ± 1.0
생식기 관련문항**	2.2 ± 1.1	2.3 ± 1.1
성폭력 관련문항**	3.7 ± 1.1	4.2 ± 1.1
성 충동조절 관련문항*	1.6 ± 0.7	1.7 ± 0.6
성 태도	5.56± 2.0	5.64± 1.8

* p<0.05, ** p<0.01, paired t-test에 의한 결과임

주) 성태도는 고득점일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함

표 7. 성지식도와 성태도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성태도	
	교육 전	교육 후
성지식도	교육 전	0.06
	교육 후	0.28**

** p<0.01, 상관분석에 의함

표 8. 성 태도 향상 유무별 성 지식도 평균치 비교

구 분		성 태도		t값	p값
		향상군	비향상군		
성지식도	교육 전	31.1±4.47	31.2±4.92	0.27	0.79
	교육 후	34.1±4.81	32.8±4.77	-2.63	0.00

으로 하였다.

성태도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별로 긍정적 성태도를 가진 경우 1점, 부정적 성태도를 가진 경우를 0점으로 하여 총점을 합산하여 성태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성교는 성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유희일 뿐이다’, ‘성과 사랑은 분리할 수 있다’, ‘음란물에 나오는 성행동을 나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 ‘성에 대해 남성은 적극적으로 여성은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 ‘남성의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 또는 노(No)는 예스(Yes)라고 해석해도 된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된 장소에서보다 은밀한 곳에서 해야한다’,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남자의 성욕구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몸가짐을 잘 해야 한다’, ‘결혼 전 성관계는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의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성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존경, 사랑, 믿음,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긍정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적인 성의 지식도는 교육 전 31.2점(표준편차 4.6)에서 교육 후 33.1점(표준편차 4.9)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나($p<0.01$) 성태도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 지식의 각 범주별로 교육전후 차이는 피임, 성병, 월경, 낙태, 생식기, 성폭력, 성충동 조절 관련문항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01$, $p<0.05$)(표 6).

성지식도와 성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성지식도와 성태도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교육

후 성지식도와 성태도와의 정의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7).

성교육 실시 후의 태도 점수를 성교육 실시 전 태도 점수로 차감하여 성태도 점수가 향상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성교육 실시 전 성지식도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성교육 실시 후 성지식도에서는 성태도 점수 비향상 군이 평균 32.8점이었고 성태도 점수 향상 군이 34.1점으로 성태도 점수 향상 군에서 성지식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표 8).

고 찰

197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 건강은 인격, 의사소통, 사랑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 측면의 통합된 성적 존재로서 성적 감정에 따라서 즐기고 행동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는 바(정금희, 1999), 성교육은 인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생물학적), 태도(신념), 가치(성도덕과 가치관)를 형성하고, 합리적 성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부각되었던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의 관점에서도 성 활동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강조함(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4)으로써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의 질적 제고와 포괄적 접근개념으로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청소년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의 행태가 전생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되어 실시되어야 할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이선희 등, 2000). 청소년기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성 지식의 습득과 성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피상적이고 의례적인 성교육이 아닌 직접적이고 유익하며, 내실있는 성교육의 정립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바(김현경, 1999),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무지나 왜곡된 지식을 교정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지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 지식에 따른 성 태도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주로 결정되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청소년의 인격적 요소와 결혼 전 성 관념 및 결혼 후 성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인격 발달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 태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이고 계획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실시는 없었으며 일부 각급 학교에서 실시된 프로그램 또한 일시적, 단편적인 것이었다. 또한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체계적 평가는 미흡하였으며, 성교육 관련연구에서도 대부분 일반적인 성교육의 방향설정과 관련된 기초실태 및 요구도 조사가 대부분으로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증재에 대한 평가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SIECUS(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0)에서도 실제 운영된 성교육 프로그램(Sexuality Education Programs)의 과학적 검정 평가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추후 성교육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내용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개발, 시행되었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관련된 요인을 밝힘으로서 성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성교육 실시 전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 지식은 대체로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상 학생층이 고등학생으로 이전에 공식 및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성지식의 습득 경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지식은 각 문항별로 변이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높은 정답율을 보였으며, 월경관련 문항과 성충동 조절에 관한 문항에서는 70% 이상의 정답율을 보였다. 성교육 실시 후의 성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피임, 성병, 월경, 낙태, 생식기, 성폭력, 성충동조절의 문항에서 성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연구마다 성교육 대상자들과 성지식 측정문항 등에 차이가 있어 정답율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방미라(1989), 이귀현(1985), 강희경(1991), 이선희(2000)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성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지식의 향상이 있었다는 결과에는 일치하였다. 즉 지식의 전달 면에서는 성교육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에 대한 지식은 성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 문제를 조기에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전달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방미라, 1989).

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주로 결정되고 이러한 태도가 청소년의 인격적 요소는 물론 결혼 전 성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성교육 실시를 통하여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곽양신(1997), 강윤전(1995) 등이 성태도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한 결과와, 방미라(1989), Demetri(1979)의 연구에서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있어 성교육의 효과가 있었음을 제시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은주(2000), Parcel과 Lutterman(1981)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arter와 Frankel(1983)은 성교육이 성태도에 부분적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Wood와 Mandetta(1975)는 성교육이 태도변화를 즉시 가져오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연구에 따라 성태도의 변화에 있어 성교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성교육 실시전 후에 성태도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성태도가 가정과 학교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러 요인의 영향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단기간의 성교육을 통해서 쉽게 변화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성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단기간의 성교육을 통하여 성태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추후 성교육 실시 때에는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동료, 보건교육 제공자로부터의 지속적인 강화가 주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청소년기의 특성상 태도가 행위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개인의 인식, 태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강희경(1991), 김설희(1991)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성태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성에 관한 지식도와 성에 대한 태도와는 성교육 실시 전후 모두 정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성교육 실시 후에는 성지식과 성태도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지식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책임있는 성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보건사업에서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보건사업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의 중요성은 범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Chen 등, 1990; Elanine 등, 1990; Koji 등, 1990). 국내에서도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은 이미 제시된 적이 있으며, 일부 학교 보건실태조사 결과, 대상학교의 72.1%가 보건소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남희, 1992). 본 연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을 시도한 성과물로서 그 결과와 경험이 의미있다고 판단되며,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관심의 부각과 더불어 최근 일선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의 교재개발과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실제적인 시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실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음에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SIECUS(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0)에서는 성교육 프로그램(Sexuality Education Programs)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충분한 수 평가, 무작위 할당 사용, 충분한 표본크기, 장기적인 추적조사, 태도 및 신념보다는 행태의 측정, 적절한 통계분석, 긍정 및 부정적 결과 모두를 발표, 성공적 프로그램을 재현하는 연구의 실시와 독립적인 외부 평가자 이용 등의 내용을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본 연구에서 약 1년간 총 8회에 걸친 단기적인 운영 프로그램으로 행동변화의 측정이 제한점이 있어 즉각적인 영향(impact)을 측정할 수 있는 성교육 전후 성지식 및 태도의 변화를 측정평가항목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추후 SIECUS의 권고안을 감안하여 좀더 장기적인 효과 또는 결과 즉, 성적 접촉 및 성관계 등 성적 경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며, 성교육에 대한 내용, 수업방법, 강의시간 및 전체적인 강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성교육 내용의 구성에도 포괄적 접근, 즉 첫째 청소년에게 인간의 성(sexuality)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둘째, 청소년 자신들이 스스로 성적 태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셋

제, 의사소통, 의사결정, 거절 등 청소년의 대인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넷째, 성적 관계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책임에 대한 연습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SIECUS, 2000)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초등학교 시기나 그 이전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좀더 특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강의식 위주의 교육방법 보다는 규모가 작은 그룹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방법을 이용한 성교육이 운영된다면 좀더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제한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특히,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인하여 일부 피교육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기피로 인한 응답자의 선택에서 제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본 연구조사는 모자보건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중재된 일부 생식보건사업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간 8회에 한정된 단기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다섯째, 도출된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나 신념 등의 결과는 이미 학생들이 성장, 발달되는 과정에서 노출된 교육 및 내·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순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교 1학년생을 목표집단으로 개발, 시행되었던 성교육 중재 프로그램에서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식 및 태도변화에서의 학습효과에 관련된 요인을 밝힘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의 프로그램 내용개발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은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충남도 1개시 지역관내 3개 고등학교 1학년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월 1회의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강의와 비디오 등을 이용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으로 이루어졌다.

본 자료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남녀 각각 184명과 244명으로 총 428명이었다. 성교육 실시 전후 지식도와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정도를 통한 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교육 실시 전인 4월과 정기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인 12월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및 사후 평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물학적 성지식에서 학생들은 월경, 성폭력에 대한 정의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 그 외 문항에서는 혼재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실시 후 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성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단일 변수분석 및 상관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성지식 수준의 향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성에 대한 태도변화에도 성지식이 상관이 있어 건전한 성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 및 발달단계에 따른 장기간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운전. 국민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지식 및 성태도 형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강희경. 성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아동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곽양신.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성교육 프로그램

- 개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고승덕, 김은주, 박상수. 성교육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성지식 및 성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26(2):223-235
- 구자옥. 중등학교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귀희.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설희. 초등학교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및 성교육 행동.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은주.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연구 - 여성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주연.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내용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9;16(1):167-185
- 박남희.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보건 실태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성정.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애신.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방미라.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보령시 보건소. 모자보건 거점보건소 사업계획. 1999년 2월
- 보령시 보건소,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령시 학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및 신흥부부 생식보건관련 위험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2000년 12월
- 안창선, 김현옥. 학교 성교육, 교육과학사, 서울, 1991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검증보고서, 1999
- 이귀현. 성교육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무식, 김은영, 천병철, 이석구, 전경희 등. 일부 고등학생에서 성(性)적 활동의 위험 요인 분석. 모자보건학회지 2000;4(2):199-217
- 이선희, 하은희, 채유미, 김명실, 김정연 등. 일개 농촌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성교육 전후 성지식 및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2000년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설악일성콘도. 2000년 10월
- 이은정. 고교생과 고교생학부모의 성의식,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건강증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조사 및 시범사업 모형개발, 2000
- 정금희. 청소년과 성, 1999년도 한국모자보건학회 제6차 학술대회, 대구가톨릭의과대학, 1999년 10월
- 차은석.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순희.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황금주. 여자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Aderson-Ellstron A. Forssman L. Milsom I. Age of sexual debut related to life-style and

- reproductive health factors in a group of Swedish teenage girls. *Acta Obstet Gynecol Scand* 1996;75:484-489
- Beitz J. Sexual health promotion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imacy prevention strategies. *Holist Nurs Pract* 1998;12(2):27-37
- Carter JA, Frankel EA. The effects of teacher training program in family life and human sexualit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public teachers, *J School Health* 1983;53(8):459-462
- Chen WW, Lee SP, Pigg RM, Huang SY, Yen EDW. Taiwan, R.O.C.:Perspectives in school health. *J School Health* 1990; 357-362
- Elaine JS, Cheryl LP. United States : Perspectives in school health. *J School Health* 1990;363-369
- Henshaw SK. Kenney AM. Somberg D. Van Vort J. Teenage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the problems and state responses. New York. NY Alan Guttmacher Institute:1989
- International Cairo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 7.2, 1994
- Koji W, Mori C. Japan : Perspectives in school health. *J School Health* 1990;330-335
- SIECUS(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Developing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1999
- Parcel S, Lutterman D. Evaluation in sex education, Evaluation research for sex education applied to program planning. *J School Health* 1981;51(4):278-281
- Rosenfield WD. Vermund SH. Wentz SJ. Burk RD. High prevalence rate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association with abnormal Papanicolaou smears in sexually active adolescents. *Am J Dis Child* 1989;143:1443-1447
- SPSS Inc. SPSS Base 7.5 for Windows User's Guide. Chicago: SPSS Inc., 1997
- Vacalis TD. The effects of two methods of teaching sex education on the behaviors of students. *J School Health* 1979;49(7):404-409
- Wood NF, Mandetta A. Changes in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following a course in human sexuality. *Nursing Research* 1975;24(1):10-15
- Zabin LS. Kantner JS. Zelnik M. The risk of adolescent pregnancy in the first months of intercourse. *Fam Plann Perspect* 1979;11:215-222